

“봄꽃으로 집안 단장 해보세요”… 일산의 유혹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화훼산업대전 22~26일까지
10개국·업체 100여곳 참여

비대면 온라인 전시도 가능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이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년 만에 열리는 박람회는 온·오프라인 화훼 전문 비즈니스 박람회로 열린다.

사전 예약제를 통한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관람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총 10개국 100여개’ 국내·외 기관, 협회, 단체, 업체 참가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등 국가관과 해외 업체를 통해 국내외 화훼 관계자들의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뤄진다.

농가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품종을 접할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국내 신품종 전시관에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고양레이디, 스프레이 국화 등이 전시된다.

또 75품종 2200본 이상의 해외 우수 신품종 전시관이 조성되어 화훼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대구광역시 등 다양한 화훼 관련 유관기관·협회의 홍보관에서는 최신 화훼산업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다.

화훼·원예 소품, 기자재, 스마트팜 등 분야별 특화된 업체의 전시와 판매를 통해 국내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알린다.

비대면 화훼 정보 교류의 장 ‘온라인 박람회 및 화훼정보 플랫폼’ 개최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전시도 개최한다. 온라인 화상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 예정이며, 국내외 100여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다.



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대전의 실내전시관 모습.

특히 메타포트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생생하게 꽃박람회장장의 현장을 볼 수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 예정이다.

연중 운영되는 온라인 화훼정보 플랫폼에서 식물 분양과 원데이 클래스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전시장은 2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

예술로 피어난 꽃 문화의 세계

고양꽃전시관 로비로 들어서면 입체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플라워 판타지와 고품질의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해 제작된 꽃나무 숲이 펼쳐진다.

다양한 컬러의 꽃과 오브제, 조명으로 장식된 화훼장식 공간을 만나볼 수 있다.

‘대한민국 화예작품 초청전’에서는 국내 최정상 화훼 예술 단체가 12개의 꽃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화예의 우수성과 양질의 화훼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플라워 컨퍼런스룸과 플라워 북카페에서는 화훼 전문인력 양성과 꽃 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열린다.

IHK컵 플라워 디자인 기능경기 대회와 프리저브드플라워컵 경진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된다.

고양시 화훼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고양 화훼 직거래 장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화훼류를 홍보하기 위한 고양 화훼 직거래 장터는 5월 8일까지 일산호수공원 메타세쿼이아 광장에서 열린다.

고양시 20개 화훼 생산 농가가 참여하여 직접 재배한 우수한 품질의 다육식물, 분화, 난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김운영 대표이사는 “올해 꽃박람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화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훼산업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화훼산업 관계자와 농가, 시민 모두가 아름다운 꽃을 통한 교류·소통으로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호수공원 야외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테마의 힐링 정원이 5월 말까지 펼쳐진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AC호텔에서 로맨틱 루프탑 웨딩 감상하세요”

28일 강남서 첫 ‘웨딩 페어’ 개최
당일 계약땀 무집한 혜택 제공

취향 맞춤 ‘나만의 웨딩’ 선택
2030 커스터마이징 웨딩 추구

서울 강남구 역삼동 AC호텔 바이 메리어트 서울 강남이 28일 ‘웨딩 페어’를 개최한다.

AC호텔 강남은 프라이빗 스몰 웨딩부터 특별한 루프탑 웨딩까지 다양한 웨딩 상품을 직접 체험할 자리를 마련한다.

호텔 측은 미국의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모던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3월22일 국내 최초 개관해 처음 여는 웨딩 페어인 데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이해 올봄부터 웨딩 수요가 급

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더욱더 세심하게 행사를 준비했다.

‘개성’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웨딩’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플라워 데커레이션’ 등 웨딩 홀을 장식하는 디스플레이 요소를 예비부부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취향을 완벽하게 맞춘 ‘나만의 웨딩’을 꾸밀 수 있다.

웨딩 홀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2층 연회장 ‘살롱’은 LED(3600x1900) 스크린을 적용한 미디어월을 갖춰 드라마틱한 웨딩을 연출할 수 있다.

최상층인 21층 ‘루프탑 바 클라우드’에서 펼쳐지는 루프탑 웨딩은 하나의 ‘로맨틱 파티’다.

‘루프탑 바 클라우드’에서는 남산과 북한산까지 탁 트인 도심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세계적인 여행 사이트 ‘투어스캐너’가



AC호텔 강남 ‘루프탑 바 클라우드’ 모습.

전 세계 루프탑 ‘베스트50’ 중 하나로 꼽혔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웨딩홀이 돼다. 수용 인원은 50~100명으로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웨딩을 치르는 데 안성맞춤이다. 루프탑에 함께하지 못한 하객은 2층 연회장 살롱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식 장면을 볼 수 있다.

모든 웨딩에서는 다이닝 레스토랑 ‘AC키

친’을 이끄는 베테랑 박흥희 셰프가 만든 수준 높은 세계 미식을 하객에게 제공한다.

웨딩 페어 참석자들에게 핑거 푸드, 주스 등이 제공돼 손맛도 살짝 맛볼 수 있다. 오후 2시, 4시, 6시 등 총 3회 열린다.

웨딩 페어 당일 계약 시 △30만원 상당 부케 증정 △애프터 드레스 제공 △대관료 20% 할인 △하객 100인 이상 시 ‘프리미어 객실’ 1박 제공 등 푸짐한 혜택이 주어진다.

웨딩 페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프리미어 객실 투숙권’ ‘AC 키친 평일 2인 디너 식사권’ ‘AC 하우스 와인’ ‘AC호텔 머그잔’ ‘플라워 부케’ 등을 나눠준다.

호텔 관계자는 “‘신생 호텔’답게 눈높이 예비부부도 만족할 수 있도록 웨딩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웨딩 페어에서 고품격 웨딩을 위한 ‘럭셔리 스몰 웨딩’에 방점을 둔 AC호텔만의 특별한 웨딩을 미리 감상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식약처,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지침서 배포

벌레·머리카락 등 신고 찾아
이물 종류별 혼입 예방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1만 7535건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됐고 금속(9.7%), 비닐(6.4%), 플라스틱(5.6%), 곰팡이(4.5%)가 그 뒤를 이었다.

벌레 혼입 예방을 위해서는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 자주 비워줘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머리카락 혼입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한다.

음식물에 금속·비닐·플라스틱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리도구나 용기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재는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한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물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지자체)에 인계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6만 6,000명의 제품 이용 경험 소비자와 전문가 대상 조사

한국 품질만족지수 1위 기업, 10년 연속

표정있는가구 — **에 몬 스**



new 보니타 F003



10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기밀 특별전



대표번호 1800-9966